

새로운 책...

▲금강경오기해설(아용 스님 편)=한국불교의 대표적 소의경전인 <금강경>에 대한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대(윤청광 지음)=고승열전 시리즈 제13권으로 한국 불교교육의 선구자인 영호(속명 박한영)스님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책...

▲결말이 배운 인생(삼중스님 지음)=재소자 교화에 힘써 온 스님이 삶의 갈피에서 겪어왔던 정감어린 사연을 부처님의 자비의 말씀으로 풀어냈다.

▲결말과 비리때 1·2(진병호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법손이 이어지기까지 중국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선종의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결말과 비리때 1·2(진병호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법손이 이어지기까지 중국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선종의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결말과 비리때 1·2(진병호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법손이 이어지기까지 중국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선종의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결말과 비리때 1·2(진병호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법손이 이어지기까지 중국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선종의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결말과 비리때 1·2(진병호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법손이 이어지기까지 중국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선종의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결말과 비리때 1·2(진병호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법손이 이어지기까지 중국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선종의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결말과 비리때 1·2(진병호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법손이 이어지기까지 중국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선종의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결말과 비리때 1·2(진병호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법손이 이어지기까지 중국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선종의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결말과 비리때 1·2(진병호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법손이 이어지기까지 중국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선종의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결말과 비리때 1·2(진병호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법손이 이어지기까지 중국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선종의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결말과 비리때 1·2(진병호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법손이 이어지기까지 중국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선종의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결말과 비리때 1·2(진병호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법손이 이어지기까지 중국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선종의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결말과 비리때 1·2(진병호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법손이 이어지기까지 중국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선종의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결말과 비리때 1·2(진병호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법손이 이어지기까지 중국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선종의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불교만화 아직 '걸음마 단계'

'만화 화엄경' 등 불과 30여종뿐... 올 4종 발간계획

최근 문체부가 올해 '만화 산업 도약의 해'로 정하고 영상시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화산업 육성책을 확정 발표한 것을 계기로 불교만화의 출판이 본격화 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만화책은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손에 들었다 하면 한번에 푹독하게 하는 재미와 가독성(可讀性)을 지녔다. 그래서 어려운 교양을 참고서나 복잡한 역사물들이 최근 잇달아 만화책으로 극대화되고 있다. 그러나 20여년전 선보인 불교만화는 아직도 걸음마단계에 있다. 따라서 영상시대를 위한 포교용 불교만화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교만화는 겨우 30여종(그나마 10여종은 일본·중국만화의 번역본). 이는 지난 95년 신간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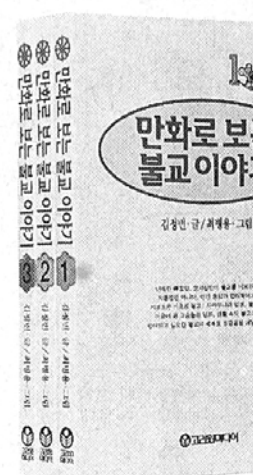
발행량 4,600종의 0.6%에 불과한 수치다. 불교만화를 낸 출판사도 불교만화사 우리출판사 간경도감 불지사 불광 고려원 미디어 호산문화사 부다가이 등 11개 출판사에 불과하다. 열악한 불교만화 출판의 활성화는 문체부의 '만화산업 도

약의 해'와 조계종 '불교청소년의 해'와 맞물려 더욱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청소년층과 만화매니아들에게 불교를 재미있고 친근하게 심어줄 수 있는 만화의 진흥과 보급은, 가장 적은 투자로 불교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포교방편이라는 것이다.

문체부 만화산업 육성책 발표 계기 만화장점 살려 '1등 포교사'로 활성화

로한 캐릭터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교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교계 유일의 불교만화전문출판사인 불교만화사의 임기준사장은 '화엄경' 전10권이 3월경에 완간되면 8월에 열리는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출품할 계

획이다"면서 "교계도 이제 만화가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란 인식을 버리고 가장 효과적인 1등 포교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만화시대를 위한 불교 출판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사진은 최근 발간된 고려원미디어의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김재경 기자

1600년 한국불교문헌 총정리

동대출판부 '한국불교전서' 12권 완간

한국불교 1천6백년의 문헌을 총정리하는 고려 <속장경> 이후 최대의 학술발사 26년만에 마무리됐다.

동국대(총장 송석구) 출판부는 총 12억원을 투입해 지난 89년 <한국불교전서> 10권을 펴낸데 이어, 6년만에 보유(補遺)편 제2권을 추가함으로써 현존하는 한국불교 문헌을 총망라했다. 12책으로 완간된 <한

국불교전서>는 불교전래 이후 신라 원축(613~696)이 쓴 <반야심경>으로부터 고려의 의천·보조를 거쳐 한말 보경(寶鼎: 613~696)의 <염불요론과 해(要門科解)>에 이르기까지 저자 1백80여명이 남긴 3백여

권의 옛문헌을 집대성했다. 고려 의천의 <속장경> 이후 최대의 학술사업으로 평가되는 이번 <한국불교전서> 12권 완간은 불교학 뿐만 아니라 역사철학 문화 등 한국학 전반에 획기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인다.

'속장경' 이후 최대 학술발사로 평가 시대·저자별 구성...26년만에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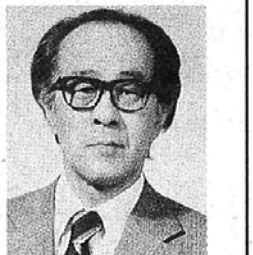


이전에 간행된 보유편 제2권에는 △원축의 <德岩功德經序> △의천의 법승 곡심(法乘文類集解), 조구의 <자비도량참법집해> △조신 자신의 <五種梵音集>, 경일의 <車乘集>, 해동진량의 <海潮集>, 백과사전의 <茶經說> △한말 보경의 <염불요론과해(要門科解)> 등의 회귀본을 실고 있다. 특히 곡심의 <원종문류집

해)는 의천의 화엄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며, 조구의 <자비도량참법집해>는 그간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자비도량참법 미수대사술해>와 <자비도량참법 동림사약해> 등이 부분적으로 소개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한국 미술사 자료집성 4·5집' 펴낸 진홍섭 씨

'한국미술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리하겠다'는 원력으로 소위없이 작업을 진행해온 원로 미술사학자 진홍섭(78·전 문화재위원장)박사가 최근 새 책을 펴냈다. <한국 미술사 자료집성> 제4권과 5권(일지사 펴냄).



진홍섭

3권에 이어 5년여만에 나온 이번 자료는 조선전기 선조(1517년)때부터 경종(1724년) 때까지의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왕조실록> 같은 정사는 물론 야사·개인문집까지 소상히 뒤져 미술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뽑아내 체계화했다.

이번 제4권 회화편과 제5권 건축·조각·서사(書寫)·공예편을 위해 그가 조사한 자료는 개인문집만도 1천1백여권에 달한다. 특히 제4권 자료를 통해 18세기까지 상당히 많은 회화작품이 있었으나 대다수 정해 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개인이 소장한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없어 애로가 많았다"는 그는 후배학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손쉽게 자료를 보게 되겠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 87년 제1권이 나온 후 조선 중기를 넘어서는데 10년이 걸렸지만 근대 미술사 전공자들의 연구욕과 깊이가 심화되면서 그의 작업은 더욱 빛을 받고 있다.

조선 선종~경종때 정사·개인문집 토대 미술사 자료 체계화

진박사는 "올 여름까지 3권 분량의 원고를 마무리 짓고 전공으로 돌아가 생전에 불교 미술 관련 연구를 정리하고 싶다고 노익창의 학구열을 펴보이고 있다. (재)

명사추천

불서 100선

일타스님 '기도'

양서(良書)와 만날 수 있는 인연에도 감사할 일이다. 지금은 경북 영천 은해사에 주석하고 계시는 일타스님을 아직 친경할만한 복이 내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이 펴내신 책, '기도'를 만날 수 있는 선연(善緣)은 한 조각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고 계셨다. "기도를 할 때는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그러나 요행수를 바라는 안된다. 신심을 가지고, 환희심을 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확신에 찬 기도를 하라." 스님께서는 일상의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기도 하다.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물론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평소 아침에는 108배를, 저녁에는 108번 염불을 생활화 하라하고 힘주어 말



정 채 은 (주)해맞이 대표

환희심 가득찬 기도성취담 52편 '기도 왜·어떻게 해야 하나' 지침서

시선을 꼭 빼놓고 놓아주질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한결같이 놀라운 영험을 보이는 기도 이야기도 이야기거리니 기도를 올리는 이들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여과없이 내게 전달되었다. 게다가 편편의 이야기들이 끝날 때마다 팔딱하게나마 부연 설명을 잊지 않고 있는 스님의 글은 자못 내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자신에게 던지도록 유도해 주기도 했다.

쓰고 있다. 정성을 다해 매일매일 기도하노라면 어느 결엔가 그릇된 생활 태도들이 달라져가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도에는 '확고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지어는 당장 다급한 내 사정을 불 보살님께 호소해 달라고 해도 불 보살님의 가피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하라는 것이다. 하물며 불 보살님의 자비심과 반야지혜를 지닐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침마다 108배를 하느라 허리를 접으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두 손을 머리 위로 삼십시 받쳐올리면서 나는 어떤 발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그간 많은 스님들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이제 다시 일타스님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 보니 그 감동이 더해 감히 불자들에게 일독을 권해 본다. 고침:63호 8면 '명사추천 불서백선' 내용중 무제출시(無題出施)의 출(出)은 철(七)의 오제입이다.

부처님 말씀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저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교 서적, 나아가서 불교 문화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정신 문화를 꾸어 가는 주역들입니다.

“항상 친절한 안내로써 맞추어주기에 항상 편안히 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서점에서도 구할 수 없는 불서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에 오 보면 불교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책방 여시아문에 저는 불자 여러분의 기대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고 날카로운 지적 바로 전문가의 그것과 견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주문들도 있지만 불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만 있다면 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책방 여시아문도 꼭 해 낼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훌륭한 다리라면 책방 여시아문은 여러분과 부처님 가르침을 잇는 더욱 튼튼한 다리이고자 합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 팩스: 737-0696

책방 여시아문

경희대 불교대학 불교학부 불교학과 불교문화연구소

경희대 불교대학 불교학부 불교학과 불교문화연구소

경희대 불교대학 불교학부 불교학과 불교문화연구소